

문화

전남대 음악교육과 교수·학생 한자리에

내일 '정기음악제' 예술대 연주홀

전남대 음악교육과(학과장 정애련) 교수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기음악축제가 12일 오후 7시 전남대에예술대학 연주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재학생들이 유명 오페라 '지킬 앤 하이드'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음악회의 시작은 이태연교수와 재학생들이 함께 꾸미는 피아노 앙상블 슈베르트의 '송어',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이 장식하며 남의천 교수와 제자들은 사물놀이와 피아노 반주에 맞춰 '농부가'를 들려준다. 또 정애련 교수는 가곡 '동심초'와 리스트의 '오 나의 고향에서'를 부른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2부 순서에 마련된 '지킬 앤 하이드'다. 뮤지컬에 삽입된 24곡 가운데 'This is moment' 'Once upon a dream' 등 16곡을 선곡, 40분 분량의 공연으로 재편집했다. 지킬 역의 한지성, 엘마역의 박비손씨 등 30여명이 출연한다. 전석 무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3기 입주작가 모집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청년 작가 발굴·육성을 위해 중국 북경창작센터 제3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광주지역 미술대학이나 일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3년 이상 광주에 거주한 작가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2~22. 신청서와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작가는 오는 2011년 1월7일~7월 6일 중국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창작을 할 수 있다. 또 창작센터 내 스튜디오 제공, 왕복항공료 지원, 생활비 일부 지급,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받는다. 문의 062-613-71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6일 목포서 박화성 문학 페스티벌

'박화성연구회'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목포문학관에서 '제4회 소영 박화성 문학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박화성 문학과 로컬리티'란 주제로 열린 이번 문학 페스티벌에는 김병욱 문학평론가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수진 신학박사의 '기독교 목포 전래와 박화성 단편 '한귀'', 이훈목포대 교수 등이 '박화성 문학과 윤리'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작가 한승원씨를 초청해 '자연 친화의 문학'이란 주제의 강연회도 열린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가을은 1년의 수고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계절이다. 지역 극단과 배우들 역시 1년 농사를 갈무리하는 작품들을 통해 한해를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수상했던 작품이 관객을 만나고, 모노드라마의 맥을 잇는 작품 등 다채로운 작품이 연극팬을 기다리고 있다.

남도의 가을, 연극축제로 물든다

▲연극제 대상 작품을 만나다-랑아랑아 영랑아



14~16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랑아랑아 영랑아'는 지난해 열렸던 전국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에서 영예의 대상과 연출상, 최우수연기상 등 3관왕을 휩쓴 작품이다. 14~15일(오후 7시30분), 16일(오후 3시·7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이 작품의 모티브는 '모란이 피기는 까지는'의 시인 김영랑이다. 하지만 무대의 배경을 저승의 열라국 명부전으로 삼는 등 단순한 시인의 일대기를 그리는 대신,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그의 내면을 들여다 봤다. 영랑에 대한 내면 탐구는 예술과 삶, 인간과 예술의 관계로까지 확장된다.

창단 이후부터 '우리 것'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았던 극단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 한국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춤, 노래 등 다양한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졌다.

극단 대표 오성원씨가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류강·이담금·정일형·한명성·심현정씨 등이 출연한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 마음 아스미' 등 대표적인 곡들을 양악과 국악음악으로 만들어 들려준다. 문의 062-511-2446.

▲대표 문화상품을 꿈꾸다-김치

나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예인방(대표 김진호)이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작품으로 나주(12~14일 나주문예회관)와 광주(19~27일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김치'가 화제를 모은 건 드라마 '용의 눈물'의 김재형 PD가 47년만에 처음으로 연극 연출을 맡았다는 점이다. 김 PD는 두달여전부터 나주에 머무르며 지역 배우들과 작업을 진행했다.

극단 김진호 대표가 직접 대본을 쓴 '김치'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삼십년 동안 김치죽집을 운영하는 향수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품이다.

여주인공 향숙역으로는 임은희씨가 출연하며 박규상·송수영·김영·손만석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예인방은 연극 '김치'를 지역 특산물, 풍광 등과 어우러진 남도 대표 문화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문의 061-334-100.

12~14일 나주문예회관·19~27일 유스퀘어



화면 분할로 피워 낸 꽃의 하모니

서양화가 박형배 개인전 14~20일 광주 대동갤러리

서양화가 박형배씨가 오는 14~20일 광주 대동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신작을 발표한다.

이들 작품은 수직과 사선으로 면을 나눈 뒤 산과 꽃, 들과를 적절하게 배치해 안정감을 줬다. 단순한 면 분할이 아닌, 꽃잎의 형상으로 면을 나눈 감상의 재미도 더했다. 이를 통

해 각기 다른 장소와 소재를 한 화면에 나타내고, 소나무와 계곡 등을 한 작품 속에 등장시키는 다양한 효과를 낸다.

조선대 미술교육과를 나온 뒤 6차례 개인전과 전남미술협회전, 오지호미술상기념초대전 등 수십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노드라마의 맥을 잇다-아버지



내달 13일까지 매주 목~토요일 공동예술극장

한명의 배우가 온전히 무대를 책임지는 모노드라마는 연기 내용이 물론이고 상당한 체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모노드라마 '아버지'의 배우 박윤모씨가 지난 1988년 광주와 서울, 북경 등지에 87회 공연을 마치고 쉽게 업무가 나지 않아 '긴 휴식'에 들어갔다.

그러다 꼭 10년만인 2008년 '또 다른 도전'을 시작, 100회 공연을 넘겼던 박씨는 '약속대로' 2009년에도 2010년에도 '아버지'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11월 13일까지 매주 목~토요일 광주 공동예술극장.

한승원씨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아버지'는 11남매를 키운 아버지 김오연이 고회연에서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박씨는 공연 내내 자신들에 대한 사랑과 아쉬움, 아내에 대한 측은함 등을 내보이며 대한민국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인다. 정일형·김준탁·이래경씨 등이 아들·딸로 찬조출연, 노래와 가야금 병창 등으로 고회연의 분위기를 띤다.

지역 작품으로는 드물게 서울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으며 올 여름에는 미국 LA에서도 공연됐다. 문의 062-222-7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들의 사랑'

마음의 안식과 세계평화 메시지를 영성음악에 담다

'2010 화엄제' 23일 구례 화엄사

세계적인 영성음악가들이 마음의 안식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선보이는 '2010 화엄제'가 오는 23일 오후 3시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다.



실비아 나카치

2006년 시작된 화엄제는 초가를 햇살 아래 지리산 자락의 맑은 공기와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세계 각국 출신의 영성음악가들이 들려주는 영성음악을 듣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휴식과 치유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이클 크랩

'길눈 뜨다'(Wisdom's Eyes)를 주제로 한 올해 화엄제는 실비아 나카치(브라질), 마이클 크랩(미국), 바트세향 출현(몽골), 아리옹볼프 다쉬도르즈(몽골) 등 외국 음악가들과 승무 예능보유자인 이애주 서울대 교수, 연주자 정재일, 한국전통음악을 토대로 하는 음악극 그룹 '바람꽃'이 출연한다.



이애주



정재일

나카치는 인도와 남미에서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발상을 구사하는 노래를 들려주며,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 크랩은 첼로 연주를 보여준다.

몽골 출신 출현은 몽골전통악기 마두금, 다쉬도르즈는 몽골 전통악기인 대마두금을 연주한다.

이번 화엄제의 총감독은 작사·작곡가 겸 가수인 박치음 순천대 교수, 음악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원일 교수가 맡았다.

화엄제에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화엄사 홈페이지(www.hwaeom.org)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전석 초대.

한편, 화엄사는 이번 '화엄제'와 함께 23~24일 템플스테이도 진행한다. 문의 061-782-76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eokgong' (Seokgong) featuring a large building image and text: '서강빌딩 매각공고',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The S1 더실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44py 54py 65py', '총무과 TEL. 062-263-0136'.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eokgong' (Seokgong) featuring a city skyline image and text: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The S1 더실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44py 54py 65py',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eokgong' (Seokgong) featuring text: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 분할가능 1층이 옷매장들로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사무실, 학원)', '적합 조립, 제조회사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 완비',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000평 700평 300평 250평 196평', '134평 100평대물(다량보유)', '급매: 비아-해남3공단지입로 3거리 코너 235평 평당215만원', '구할: 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공장: 해남공단 평등공단, 첨단공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구: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 (다수보유)', '첨단지구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회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eokgong' (Seokgong) featuring text: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대출산단 공장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15,000평', '▶건 물: 9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장성동화 공장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2400평(계획관리)', '▶건 물: 580평(동력200k)',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점)(700평)', '▶자연녹지: 700평 ▶일반공업지역: 8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대 지: ①500평 ②1200평', '▶준주거지역(통림2지구 건너편)', '▶건 물: ①상가 30평, 창고80평', '②상가 200평 공장2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대 지: 2000평(생산녹지지역)',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매매가격: 17억원 (건물 600평 포함)',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eokgong' (Seokgong) featuring text: '복대지부동산',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급매', '현대 "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 방 급매 (192m² 58py)', '• 총 분양가 • 5억 6천 136만', '• 계약금 • 5613만원 납부', '• 매 매 가 • 주인사정상 싸게 급매', '문 062) 364-1613 의 010-9005-2223',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설분과 영일 분 손님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영일 신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